

SPORTS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쏟아지는 빗속 활시위... 투혼을 쏘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5·18광장서 컴파운드 단체 결승전

“정상급 선수들 경기 인상 깊어... 한국 호성적 작성하길”



“텐(10), 텐(10) 퍼펙트 스코어(perfect score). 와!”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단체 결승전이 열린 7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관련기사 15면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에는 세계대회를 치르기 위한 양궁 사대가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장 인근에서는 티켓, 기념품 판매,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고 있던 관계자들이 오전부터 내린 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곳에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장소를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됐고, 시민들은 이색적인 볼거리에 발걸음을 멈추며 주변을 둘러봤다.

남자친구와 함께 경기를 보러왔다는 김모씨(33·여)는 “이번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미리 티켓을 구매했다”며 “많은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오늘밖에 안 돼서 굶은 날씨에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부터 한국에서 활약했던 기보배 선수나 안산 선수 등을 알고 있었다”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시위를 당기며 승부를 겨루는 모습을 이

번 기회에 직접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오후 2시가 되자 관객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득 찼고, 곧이어 결승전이 펼쳐졌다.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은 50m 거리에 있는 과녁판을 날카롭게 바라봤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긴장을 유지했다.

활시위가 당겨지자 객석에서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화살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과녁에 꽂혔고, 심판이 ‘텐(10점)’을 외치자 선수는 열린 미소를 지었다. 주변에서 이를 바라본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기쁨을 함께했다.

일부 선수들은 화살이 중앙을 빗나가자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다. 코치들은 망원경으로 과녁을 살펴보며 선수들에게 조언과 함께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많은 비가 내려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객석에서는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다. 연신 부채질을 하는 와중에도 점수를 보고 박수갈채를 보내는가 하면 선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도 했다.

경기장 밖에 있는 민주의 종각에서는 화면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는 시민들 또한 응원의 목소리를 더했다.

경상도에서 왔다는 백모씨(52)는 “주말에 바람



7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남자 단체 결승에서 시민들이 우비를 입고 응원을 펼치고 있다. **한남**

썰리고 광주에 왔는데 지나가는 길에 큰 무대가 보여 발길을 멈췄다”면서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양궁을 볼 좋은 기회였다. 오늘 경기에서 한국인 선수는 없었지만, 남은 경기에서 한국이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울산에 이어 16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 76개국 양궁 대표단 731명이 참석해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8일 5·18민주광장에는 한국 남자 컴파운드 개인전 중 유일 16강에 진출한 최용희가 우승을 향한 경

쟁을 이어간다. 같은 날 광주 국제양궁장에서는 여자 개인전 경기가 열린다. 9일까지 컴파운드 전 경기 일정을 마친 대회는 12일까지 리커브 경기 개인·단체전이 펼쳐진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양궁 컴파운드 최용희, 개인전 16강 진출

사마이 양문에 144-143 승...김종호·최은규는 탈락

혼성 단체전 네덜란드·남자 인도·여자 멕시코 우승



한국 양궁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 최용희(현대제철)가 ‘광주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인전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최용희는 7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32강전에서 사마이 양문(이스라엘)을 144-143으로 제압했다.

최용희는 앞서 1회전에서 쉬진(마카오)에게 150-141, 2회전에서 로드리고 곤잘레스(멕시코)

를 146-146 이후 슛오프 끝에 물리치고 32강에 올랐다. 이어 32강전에서 이스라엘 선수에게 신승을 거둔 최용희는 제임스 리츠(미국)과 8강 진출을 다룬다.

최용희와 함께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에 합류한 김종호(현대제철)와 최은규(울산 남구청)는 32강전에서 탈락했다.

김종호는 장빌리르 불슈(프랑스)에게 146-146

이후 슛오프 끝에 패배. 최은규는 미체아 고다노(이탈리아)에게 143-146으로 패했다.

올해 마흔으로 컴파운드와 리커브 대표팀을 통틀어 최고령 국가대표인 최용희는 한국 컴파운드 양궁 ‘1세대’로 20년 넘게 국제무대에서 활약해온 선수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019년 스페르토헨보스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 2011년 토리노 대회에서 혼성 단체전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 2014 인천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다.

다만 개인전에서는 부진했다. 특히 세계선수권에서는 스페르토헨보스 대회 8강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었다.

앞서 한국 컴파운드 대표팀은 남녀 단체전과 혼

성 단체전에서 모두 1번 시드를 받고도 조기에 탈락하는 아픔을 겪은 만큼, 최용희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8일에는 남자 개인전이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진행되며, 여자 개인전은 1라운드부터 32강까지 펼쳐진다.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대회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에서는 네덜란드가 인도를 157-15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멕시코는 대만을 158-157로 누르고 3위에 올랐다.

남자 단체전에서는 인도가 프랑스를 235-233으로 제압하며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동메달은 3위 결정전에서 튀르키예를 233-232로 물리친 슬로베니아가 차지했다. 이어 여자 단체전에서는 멕시코와 미국, 카자흐스탄이 각각 금, 은,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서석초, 야구인 동우회장기 ‘우승’

대성초 제압...손민준, 최우수선수상

서석초등학교가 ‘제31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화정초, 학강초, 서석초, 대성초, 서림초, 수창초, 송정동초 등 총 7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대회 첫째 날 서석초는 송정동초와의 경기에서 14-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승리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 둘째날 준결승에서는 서림초를 8-5로 제압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다. 결승전에서는 대성초를 만나 10-4로 승리하며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손민준(서석초)에게 주어졌다. 또 서석초는 양윤희(감독상), 박미령(지도상), 김병현(우수투수상), 양재오(타격상·최대타점상), 이찬술(최다도루상) 등 대량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대회 우승팀인 서석초와 준우승팀인 대성초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광주에서 진행되는 ‘제23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AI페퍼스, 전체 2순위 김서영 지명...4명 선발

2025-2026 신인 드래프트서 1라운드 2순위

정솔민·오은채 발탁...김민지는 수련선수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 신인드래프트에서 김서영을 포함한 4명의 선수를 지명했다.

AI페퍼스는 지난 5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5-2026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6순위로 4라운드 6순위, 수련선수 지명권을 행사했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44명과 대학교 재학생 1명 등 총 58명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명 순서는 지난 시즌 최종 순위 역순을 기준으로 AI페퍼스 35%, GS칼텍스 30%, 한국도로공사 20%, IBK기업은행 8%, 현대건설 4%, 정관장 2%, 흥국생명 1%의 확률로 추첨해 선발했다.

그러나 실제 추첨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공이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이벤트가 일어났다.

결국 1라운드 추첨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1순위, AI페퍼스가 2순위, IBK기업은행이 3순위가 됐다.

이어 GS칼텍스 4순위, 현대건설 5순위, 흥국생명 6순위, 정관장 7순위로 정해졌다.

다만 흥국생명의 1라운드 지명권은 AI페퍼스가 행사했다. AI페퍼스는 지난해 6월 이고은과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흥국생명에 내주는 대신 이원정과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은 바 있다.

AI페퍼스는 1라운드 2순위로 세화여고 김서



5일 2025-2026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페퍼저축은행에 1라운드 2순위로 김서영을 지명한 세화여고 김서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남**

영을 호명했다. 김서영은 신장 181.2cm로 미들블로커와 아웃사이드 히터를 겸한다. 당초 유력한 2순위 후보로는 진주 선명여고의 하예지, 일신여상의 최윤영, 중앙여고 박여름 등이 있었으나 AI페퍼스는 김서영을 선택했다.

트레이드로 얻은 흥국생명의 1라운드 6순위 지명권으로는 군영여고 정솔민(리베로)을 뽑았다.

정솔민은 신인드래프트 직전 열린 CBS 대회에서 군영여고의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선수로 선정, 리베로 중 최다어 토크했던 선수였다.

이어 4라운드 6순위로 군영여고 오은채(아포짓스파이커·미들블로커)를, 수련선수로는 광주

체고 김민지(리베로)를 선발했다.

앞서 1라운드에서는 전체 1순위로는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인 이지윤이 김다은(중앙여고·미들블로커)이 한국도로공사에 뽑혔다. 이어 3순위 하예지(선명여고·미들블로커), 4순위 최윤영(일신여상·세터), 5순위 이채영(한빛고), 7순위 박여름(중앙여고·아웃사이드 히터) 등 순이 었다.

한편 58명이 참가 신청한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21명이 지명돼 지명률 36.2%에 그쳤다. 이는 2020-2021시즌(33.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프로배구는 지명 라운드에 따라 선수 기본연



2025-2026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페퍼저축은행에 1라운드 6순위로 정솔민을 지명한 군영여고 정솔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남**

봉을 차등 지급한다. 1라운드 지명 선수는 4500만원~5500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련 선수는 2400만원이다.

1라운드에서 지명권을 모두 행사했던 구단들은 2라운드에서는 5개 구단만 선수를 뽑았다. 3라운드는 단 1개 구단만 지명했고, 4라운드는 3개 구단에서 뽑았다. 마지막으로 수련선수는 총 5명이 호명됐다. 흥국생명은 수련선수만 3명을 뽑았다.

정관장과 GS칼텍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드래프트에서 1~4라운드와 수련선수를 통틀어 2명씩만 선발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